**여성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

**해리 브레드비어 감독의 「에놀라 홈즈」[[1]](#footnote-1)를 보고**

20162413

김지헌

이 영화는 지금까지 여러 컨텐츠로 소비되어 왔던 소설 「셜록 홈즈」[[2]](#footnote-2) 의 2차 창작물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본편은 오직 남성인 셜록 홈즈 ,왓슨 박사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셜록 홈즈의 여동생 에놀라 홈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에놀라 홈즈가 여성으로서 받는 갖가지 차별과 무시를 극복하고, 셜록 홈즈마저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이 중에서, 극 중 여성들이 받는 갖가지 차별은 젠더적, 가부장적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그것은 누구보다 뛰어났던 에놀라 홈즈의 어머니가 여성으로 살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것,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매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것, 여성의 정치 참여는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에놀라 홈즈의 어머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 승마, 양궁 등 남성의 영역에 속해있는 것들에 능숙하고 깨어있는 사고를 가진 지식인 이였지만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능력은 무시당하고, 심지어 자식들에게 조차 ‘이상하고 귀찮은 어머니’로 묘사된다.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암호화된 편지 하나와 함께 집을 나서게 되지만, 에놀라 홈즈를 제외한 아무도 그녀의 가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심지어는 귀찮은 일이 해결되었다고 좋아한다.

어머니의 가출에 충격을 받은 에놀라 홈즈는 암호가 어머니와 전에 놀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를 찾아 나서려 하지만, 그녀의 법적 보호 자격이 있는 홈즈 형제들은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그녀가 너무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루기 힘들다는 있다는 이유를 들어 [[3]](#footnote-3)기숙학교에 넣어 남성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가부장적 사고를 주입시키려 한다. 결국 에놀라 홈즈는 기숙학교에 입학하기 전날 밤 탈출하여 기차를 타고 엄마를 찾으러 간다. 이후 어머니의 행방을 찾으며 이런저런 사건이 벌어지지만, 에놀라 홈즈는 뛰어난 두뇌와, 여성을 거의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맹점을 이용하여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그녀를 쫓아왔던 홈즈 형제들 에게도 점차 인정받는다.

이런저런 사건 후 어머니를 찾은 후, 결국 이 모든 일이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받기 위한 여성들의 계획 이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지만 20세기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아직 여성의 참정권은 농담으로 쓰기 딱 좋은 요소일 뿐이다. 그동안 에놀라 홈즈와 그녀의 어머니가 해왔던 일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 그러나 에놀라 홈즈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여성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비평문이지만 영화에 대한 내 느낌을 가미하겠다.

먼저 홈즈의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게 외면당하는 부분에선 정말 안타까웠다. 이 부분을 보며 어린시절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들었던 여성차별 일화들 예) 어머니는 대학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공순이가 되어야 했기에 4년 내내 대학교 장학금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 예전에는 여자들은 제사에 참여도 못하고 그냥 옆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등등 이 생각나 많이 공감이 되었다. 특히 에놀라 홈즈의 어머니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가출하는 장면에서는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신 “가부장적 분위기에 견디다 못해 빨리 사회로 도피하고 싶었다” 는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다.

에놀라 홈즈가 어머니를 찾아 나서려고 하지만 홈즈 형제들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부분은 극 중 상당히 코믹하게 묘사된다. 하지만 코믹한 요소를 제외하고 바라본다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한 경우가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극의 결말이다. 결국 에놀라 홈즈는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여 어머니를 찾고, 홈즈 형제들 에게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홈즈 형제들에게만 인정받은 것일 뿐, 바뀐 것은 아직 없다. 20세기 영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을 배척하고,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이해하는 분위기이다[[4]](#footnote-4).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이 영화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셜록 홈즈는 19세기 ~ 20세기 초의 영국을 무대로 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세기라고 짐작 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2차 선거법 개정 이후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선 투표율이 15%보다 낮을 정도로 여성뿐 만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 에게 조차 투표권이 없는 시대였다. 또한, 이 시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출신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시대였다. 비록 이런 설정은 극 중 여성 차별에 대한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된 설정이라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과장을 통해 “여성이 이렇게 차별 받았어!”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러한 시대상 왜곡을 통하여 여성 차별에 대한 소재 자체는 매우 설득력이 있게 묘사되었으나, 과연 실제의 시대상을 왜곡하면서까지 여성 차별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사실, 시대적 배경을 제외하고 영화를 바라보더라도 불편한 점이 다수 눈에 밟힌다. 먼저, 홈즈 형제들은 영국의 대표적 문학 「셜록 홈즈」의 등장인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들을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가부장적 남자로 그리고, 심지어 에놀라 홈즈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탐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무리 주인공 버프 [[5]](#footnote-5)를 받았다 해도, 처음 탐정 업무를 수행하는 에놀라 홈즈보다 전설적인 셜록 홈즈가 지적 능력이 떨어질까? 이는 수많은 셜록 홈즈 팬들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나는 연출이다. 또한, 제 4의 벽을 깨는 수많은 연출로 인하여 극 중 몰입을 방해하고,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아무 개연성 없이 남주인공과 엮이게 되며, 앞서 언급했던 여성 차별 요소들이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제외하고, 이 영화에서는 곳곳마다 여성 차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러닝 타임 내내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우리는 지금 19세기 영국이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현재는 혐오의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 한국인과 외국인 등 서로 사람들은 서로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 부정적인 효과를 내게 되므로, 우리는 혐오하지 않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항상 생각하며, 나와 다르다고 이상함을 느끼고 혐오감을 가지는 것을 지양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을 키워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졌을 때, 우리 사회는 한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1. 해리 드레드비어 「에놀라 홈즈」 2020 [↑](#footnote-ref-1)
2. 아서 코난 도일 「셜록 홈즈」 1892 [↑](#footnote-ref-2)
3. “드세고 위험천만한 어머니가 천방지축인 딸을 길러낸 거지” – 극중 마이크로프트 홈즈 [↑](#footnote-ref-3)
4. “하나님 맙소사 이 나라에 딱 하나 필요 없는 걸 꼽으라면 그건 바로 무지한 유권자야(여성)” – 극 중 마이크프트 홈즈 [↑](#footnote-ref-4)
5. 주인공 보정 [↑](#footnote-ref-5)